

제주 방언 '말다'의 의미 기능

문 순 덕*

차 례

- I. 서 론
- II. '말다'의 의미 기능
 - 1. '말다'의 어휘 의미
 - 2. '말다'의 통사 의미 기능
 - 3. '말다'의 화용 의미 기능
- III '말다-하다'의 대립성
- IV. 결 론

I. 서 론

표준어에서 '말다'는 명령·청유문에서 '부정소+하다'의 구조를 대신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는 '말다'가 쓰이는 명령·청유문의 구조가 장형 부정문의 구조와 같고 부정의 뜻이 있으나, 이 문장에서는 부정소 '아니, 못'이 쓰일 수 없는 데서 얻어진 결론이다. 여러 논자들의¹⁾ 요점은 '말다'를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 '못하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박순환(1967)은 '말다'와 대치되는 부정소가 '아니'인 것으로 보았으나, 송석중(1967)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다. 이정민(1977)은 평서문이나 다른 문장에서도 '말다'가 나올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특별히 원망 동사 등의 경우와 비교하여 '말다'로 대치되는 구조는 '아니하다'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복(1979)은 '말다'가 '아니하다'의 분포와 제약만 있다고 보는 것은 피상적인 관찰일 뿐이고, '말다'는 '중단'의 의미로 인해 부정 명령에 쓰인다고 하였다. 즉 '말다'의 의미를 '금지'로 보는 것은 "'말다' 자체의 의미가 아니고 문맥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말다'의 의미는 '동작(행위)이나 상태의 중단'"으로 설명하고 있다. 서정수(1975), 이효상(1993)은 '아니하-', '못하-'와 더불어 '말-'도 부정 보조동사로 보고 있다.

다'와의 상보적 분포 관계로 다루었으며, 보조동사의 문법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기본 의미는 '금지', '중단'으로 압축된다.

부정 어휘 '말다'²⁾가 표준어에서의 기능보다 제주 방언에서는 그 영역이 확대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명령·청유문에 쓰이는 것은 물론 부정 응답³⁾에서도 쓰이고, 평서·의문문에서도 '아니하다'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이것은 표준어에 비해서 그 쓰임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말다'의 이와 같은 여러 의미 기능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통사 특성은 어떠한지, 또한 '말다'의 대립쌍으로 '하다'를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물론 표준어와 다른 특성들이 중세 국어의 잔영임을 밝혀서, 제주 방언에 통시성이 있음도 보고자 한다.

II. '말다'의 의미 기능

이 장에서는 부정소 '아니', '못' 대신에 명령·청유문에 쓰이고 있는 '말다'의 의미·통사·화용상의 의미 기능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말다'의 어휘 의미

여러 학자들의⁴⁾ 견해를 종합하면, '말다'의 의미의 공통점은 '금지'임을 알 수 있

-
- 2) '말다'를 부정소 또는 부정 어휘라고 하는데, 이 글에서는 부정 어휘로 다루었다. 즉 부정소 '아니', '못'은 동사 앞, 뒤에 올 수 있으며, 원래 품사는 부사이다(어휘이긴 하지만). 여기서 부정 어휘라고 하는 '말다'는 '없다'나 '모르다'처럼 '부정소+긍정 어휘'로 분석할 수 없으며, '아니'나 '못'처럼 동사 앞에 자유롭게 놓일 수도 없고, 장형 부정문에서만 쓰인다. 따라서 '말다'는 일반 동사로서 부정소를 추출할 수 없어서 부정 어휘로 다루고자 한다. 물론 '아니'나 '못'도 부정 부사로서 어휘이기는 하지만 동사와 결합해서 복합어인 부정 서술어가 되므로 '말다'인 어휘와는 다르게 보고자 한다.
 - 3) 문순덕(1997)에서 '말다'의 기본 의미를 '행위 멈춤'으로 정의하였는데, '행하려던 것을 그만두고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행위 금지'로 정정하고자 한다.
 - 4) '말다'의 기본 의미를 보면, ① 말림(금지)이나 그만둠(中止)(최현배 1955 : 398, 여찬영 1975 : 174, 허 웅 1979 : 82, 신원재 1987 : 98), ② 동작(행위)이나 상태의 중단(이상복 1979 : 31), ③ 상태나 행동을 막음(한 길 1977 : 64), ④ 동작 실행의 단절성(김성화 1989 : 150) 등이 있다.

제주 방언 '말다'의 의미 기능

다. 이러한 의미를 추출할 수 있는 것은 명령·청유문의 통사 특성에 부정의 의미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즉 명령문은 주어가 2·3인칭, 청유문은 주어가 1·2인칭이 된다. 이처럼 제한된 주어의 선택과 선행 요소의 동작성과도 연관된다. 제주 방언에도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지 또는 다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말다'의 기본 의미를 '행위 금지'라 정의하고자 한다. '말다'의 선행 요소가 동작성을 띠므로 주어의 동작이 실현되는 것을 금지하게 된다. 따라서 '말다'는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만 '행위 금지'라는 기본 의미를 드러낸다.

['말다'의 부차 의미 기능]

'말다'가 부정 서술어로 쓰일 때는 보문소 '-지'와 공기하는데 보기 (1)은 이와 같은 통사 구조가 아니면서 명령·청유문도 아닌데 '말다'가 쓰이는 문장이다. 부정 명령문에 쓰인 '말다'에는 화자의 의지가 들어 있는데, 다음 문장에 쓰인 '말다'는 이와는 다르다. 말하자면 '행위 금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다'가 기본 의미 외에 다른 의미로 사용된 문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긍정, 강조"의 의미

- (1) 가. 아인 눅자말자 줌 들어.(이 아이는 눅자마자 잠든다)
나. (밥) 먹곡 말곡.(먹고 말고)
다. 가이 가건 말주.

(1가)에서 '-자말자'는 동시성과 계기성을 띠며 연결어미로 기능하고 있다. 주어의 반복, 습관적인 동작의 멈춤을 나타낸다. '-자말자'는 '눅는 동작이 완료되어서 그 시간이 짧음을 뜻한다. 표준어에서는 'ㄹ 탁락'인데 제주 방언에서는 'ㄹ 불탁락'이다.

(1나)는 '그렇다마다, 그렇고 말고'라는 뜻이며, '말다'는 긍정, 강조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밥 먹읍디가?(밥을 먹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일 수 있다. 따라서 "먹고 안 먹고가 없이 먹겠다"는 뜻일 수도 있다. 엄격히 말하자면 이 '말다'에도 부정의 의미는 내포되어 있다. 즉 '말다'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가, 나)는 표면 구조상 긍정, 강조의 뜻으로 쓰인 것 같지만 '행위 금

지' 라는 기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1다)에서 '말다'는 주어가 가는 행위를 '그냥 놔 두다'는 정도의 의미이다. 주어의 행위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자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으며, '말다'에는 본동사의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다)의 문장을 재구성해서 그 쓰임을 좀더 살펴보고자 한다.

- (1다') 가. 가이 집이 이시렌 흐라. (그 아이는 집에 있으라고 해라.)
 - 나. 학교 가켄 험니다. (학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 다. 가진 말주. (가면 그냥 놔 두자)

(1다)는 (1다')에서 (나)으로 실현된 문장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말다'에는 말리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주어의 행동을 그냥 놔두겠다는 뜻과, 가든지 말든지 상관 없다는 무관심의 감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말다'도 선행 동사의 행동을 확인·인정하고 있다.

(1)에서 '말다'의 선행 요소는 동작 동사임을 알 수 있으며, 명령·청유문 외에 평서문에서도 부정의 의미인 '행위 금지'의 의미가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표준어와 대동소이하다.

2) 단순 부정 "아니"의 의미

(1)에서 '말다'가 평서문에서도 쓰이는 것을 살펴보았으며, (2)에서는 '말다'의 또다른 의미 기능을 알아보려고 한다.

- (2) 가. 느가 닭을 솟아신지 말아신지 몰르켜.
 - (네가 닭을 삶았는지 안 삶았는지 모르겠다.)
 - 나. 나가 집이 돌아오져 말저 흐는디
 - (내가 집에 돌아오고자 안 돌아오고자 하는데)
 - 다. 주건 주는 냥 말건 마는 냥 흐라.
 -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하라.)
 - 라. 느네 상관이 결혼 헤시냐 말아시냐?
 - (네 상사가 결혼을 했느냐 안했느냐)
 - 마. 이 사람이 그 집의 살지 말든 말았지 난 몰르켜.
 - (이 사람이 그 집에 살지 아니하면 안 살았지 난 모르겠다.)

제주 방언 '말다'의 의미 기능

- 바. 그 일을 말쟁해도 말지 못하게 호곡
(그 일을 안하려고 해도 그만두지 못하게 하고)
사. 호교 가지 말켜.
(학교에 가지 아니하겠다.)

- (3) 늘근 할아버지를 와 볼다 말다? (두초 8:23)⁵⁾
(늙은 할아버지를 와서 보겠느냐 안 보겠느냐?)

보기 (2)는 제주 방언에서 자유롭게 발화되는 문장이다.

(2가)에서 '말다'에는 명령문에 쓰인 '행위 금지'의 의미가 없고, 부정소 '아니'의 기본 의미인 '단순 부정'의 의미가 있다. 여기서 '말다'는 '안 삶았다'의 뜻이다. 화자는 청자의 행위나 의도를 모르고 있거나, 청자의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보기 위한 표현일 수도 있고, 청자의 행위에 관심이 없는 경우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화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작의 발생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삶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거나, '아니 삶았으면 삶지 말라'는 명령문도 가능하기 때문에 '말다'가 쓰였다. '말다'는 시제 형태소와 결합할 수 없는데 여기서는 과거 시제 형태소와 결합하고 있다.

(2나)에서 '말자'는 '안 돌아올까'이다. '말다'는 '돌아오는 행동'을 단순히 부정하며, '-저'가 있어서 화자 자신의 행동을 금지할 수 있으며, 화자의 의지가 내포된 것처럼 여겨진다.

(2다)에서 '말다'는 화자는 청자의 행동에 개의치 않겠다는 뜻으로 쓰였다. 즉 부정소 '아니' 자리에 '말다'가 쓰인 것은 단순 부정의 '아니'보다도 청자의 행동에 관심이 없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말다'는 '주는 동작'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다.

5) 이 글에 인용된 문헌 자료는 석보상절(1447, 석상), 두시언해(초간본 1481, 두초), 변역박통사(1547, 변박), 노걸대언해(1670, 노언) 등이다.

6) 제주 방언 종결어미에 '-저, -주'가 있다. 현평효(1985:200-202)에 따르면 "-저'는 평서·의도법 어미로만 사용되면 1인칭 주어의 강한 의욕, 의도를 나타내며" 해라체에 쓰인다. '-주'는 평서, 청유, 허락, 의도, 추측의 서법과 관계하며 호여체에 속한다. 평서법으로서의 '-저, -주'는 동작상 형태가 선행 요소이며, 그 외 서법에서는 어간에 직결된다."고 하였다.

제주 방언의 과거 시제 형태소에는 '앗/엇', '-아시/어시'가 있는데, '저, 주' 앞에서는 '-앗/엇'이 쓰인다. '-아/어+시'에서 '시'는 원래 어간 형태소 '이시/시'(有)이며, '아시'에서 자음계 어미 앞에서 말모음 'i'가 탈락되어서 '-앗'으로 나타난다(홍중립 1993 참조).

(2라)에서 '말아시느냐?'는 '안했느냐?'라는 뜻이다. 여기서도 '말다'는 '단순 부정'을 의미하는 '아니'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아니'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말다'에 시제 형태소가 결합되었다.

(2마)에서 '말든 말았지'는 '살지 않으면 안 살았지'라는 뜻이어서 단순 부정의 의미인데, '말다'에 화자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뒤의 '말았지'는 선행 '말든'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말다'에는 주어의 행동에 개의치 않겠다는 화자의 생각이 담겨 있다.

'말다'는 시제 형태소와 결합하지 못하는데 '아니하다'와 '못하다'는 시제 형태소와의 결합이 자유롭다. 이것은 명령문과 청유문의 통사 특성과 관련이 있다. 즉 명령, 청유는 발화 시점 이후의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제 형태소가 없어도 된다. 따라서 부정 어휘 '말다'에는 시제 형태소 개입이 불가능한데, (2가, 라, 마)에는 시제 형태소가 결합되었고, 이 때의 '말다'는 '행위 금지'보다는 부정소 '아니'인 '단순 부정'의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2바)에서 '말다'는 '아니하다' 자리에 쓰이고 있는데, 의도형 어미인 '쟁(려)'이 결합되어서 화자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부정 어휘 '말다'가 쓰인 것은 화자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앞의 '말다'는 '아니'의 뜻이며, 뒤의 '말다'는 '그만두다'라는 본동사로 쓰이고 있다.

(2사)에는 '학교에 가지 아니하겠다'라는 화자의 의지, 의도가 확실하게 담겨 있다. 이것은 의도형 어미 '-(으)크-'가 있어서 화자의 의도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며, '말다'는 단순 부정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3)은 중세 국어인데 여기서도 역시 '말다'는 '아니'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본동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에서 '말다'의 의미·통사 특성이 국어의 통시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말다'가 명령·청유문에 쓰일 때는 '행위 금지'의 의미이며 선행 요소로 동작 동사가 와야 하고 시제 형태소와의 결합이 안되는데, '아니'의 의미로 쓰이면, 평서·의문문과 共起하며 시제 형태소가 결합될 수 있다. (2가, 라, 마)에는 시제 형태소가 결합되어 있고, (2라)처럼 의문문에도 쓰이며, (2나, 다, 사)처럼 주어가 일인칭

7) 형태소 '-(으)크-'는 주어가 일인칭이며 서술어가 동작 동사여서 화자의 의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말다'는 선행 요소로 동작 동사를 요구하지만 '말다' 자체에도 동작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현평효 1985, 홍종립 1993 참조).

제주 방언 '말다'의 의미 기능

인 경우에도 쓰이며, (2나, 바, 사)처럼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의도의 어미가 결합되어 있어서 그 의미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

일반적으로 부정 어휘 '말다'와 共起하는 통사 특성과 보기 (2)의 기능이 다른 것은 '말다' 자체의 의미보다는 부정소 '아니'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니'의 통사 특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말다'가 '행위 금지'의 의미 외에 단순히 주어진 명제를 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바)처럼 '말다'가 '그만두다'의 의미로 쓰임도 알 수 있다.

(2)에서 '말다'는 타의에 의한 '행위 금지'보다는 자의에 의한 '행위 금지'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부정 명령·청유의 '말다'가 통사 구조에 따라서 평서·의문문에도 쓰임을 알 수 있으며, 이 때 의미는 '행위 금지'보다 그 의미가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에서 '말다'는 '아니+선행 동사'의 복합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동일 동사의 반복형이어서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선행 동사를 부정하고 있다. 여기에 쓰인 '말다'는 본동사의 기능이 있으며, '행위 금지'인 기본 의미 외에 '아니'처럼 '단순 부정'의 의미가 있으며, '아니' 대신 '말다'가 쓰인 것은 '아니'보다는 좀더 강한 화자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본다. 즉 부정의 강도를 보면 "말다1)말다2)아니"(말다1은 행위 금지, 말다2는 단순 부정)라 할 수 있다.

(2)에서 '말다'가 '아니+선행 동사' 자리에 실현된 것은 부정 응답으로 '말다'와 '아니하다'가 혼용되는 것과 연관지을 수 있으며, 부정소 '아니'와 부정 어휘 '말다'는 상호 교체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제주 방언에서 '말다'와 '아니하다'가 병행해서 발화되는 것은 둘 다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통사 특성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다름을 짐작할 수 있다. 즉 '말다'가 본래는 '행위 금지'이며 '아니'는 '단순 부정'인데 '말다'가 '아니'의 자리에서 실현될 때는 거의 '단순 부정'으로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말다'를 쓰지 않고 '아니'를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말다'를 쓰고 있는 것은 '말다' 자체가 갖고 있는 '행위 금지'의 의미와 '아니'가 갖고 있는 '단순 부정'을 합친 의미가 필요한 문장일 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말다'를 사용할 때에는 화자의 의지가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이정민(1977 : 107)을 보면 평서문의 경우에도 주절에 願望 동사가 있으면 '말다'가 쓰일 수 있다고 했는데, 제주 방언에서 그 용법을 살펴 보면 (4)와 같다.

- (4) 가. 잔칫날 브름 불지 {말아사/아니해사} 한다.
나. 널랑 가지 {말아도/아니해도} 좋다.

(4)에서 '말다'와 '아니하다'는 수의적으로 선택되고 있는데, 물론 그 의미는 조금씩은 다르다. 실제 발화시에는 단형 부정문 '안 불어야'의 사용 빈도가 높다. (4가)의 '말다'에는 '화자의 소망'이 내포되어 있는데, '소망'보다는 좀더 강한 화자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아니하다'는 단순 부정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연결어미 '~아야(사)'와 결합해서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다. (4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니하다'에는 단순 부정의 의미가, '말아도'에는 '화자의 의지'가 내포된 금지의 의미가 들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원망 동사가 쓰인 평서문에서 화자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에는 '아니하다'보다 '말다'를 쓰는 것이 의미 전달면에서 효과적이다.

- (4') 가. 브름 불지 {말기름/아녀기름!} 브랩저. (----바란다)
나. 브름 불지 {말민/안호민!} 좋켜. (---좋겠다)

(4가)를 (4')로 대체할 수 있다. (4')에서 '말다'에는 화자의 기원, 소망이 담겨 있는데, 이것은 '바라다'라는 원망 동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다'도 직접 부정 명령의 의미보다 '바라다'와 쓰여서 그 의미가 약화되었다고 본다. 박영준(1994:211)에 의하면 (4'가)에 '바람 불지 말아라'와 같은 "기원적 명령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않-'과 '말-'이 수의적인 선택"이 된다고 보았다. 즉 명령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때에 '아니'와 '말-'이 혼용된다. 즉 '말아사 한다'에는 '바라다'라는 원망 동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4'가)에서 '브름 불지 않-'은 '바람 부는 행위'에 대한 부정이지만 그 현상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망 동사가 쓰여서 화자의 염원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말다'가 쓰인 것은 '바람 부는 행위가 멈출' 것을 강하게 희망하는 화자의 염원이 '아녀'보다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4'나)는 '바라다' 대신 '좋겠다'로 대체해 보았다. '좋겠다'에도 '화자의 희망'이 내포되어 있어서 문장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물론 (4')에서 '바람 부는 동작'은 인간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대상이지만, 그럴 수 있다면 좋겠다는 화자의 희망이 내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자연 현상에 대한 행위 금지를 바랄 때는 '아니하다'보다 '말다'가 적절하다. 박영준(1994:213)

제주 방언 '말다'의 의미 기능

의 주장대로 '말다'와 '아니하다'가 무조건 혼용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의 의미가 함축된 문장에서만 교체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말다'와 '아니하다'는 그 의미와 통사 기능이 다름을 알 수 있다.

3) "싫다"의 의미

(5) 가. 나 한 톨 콩 말댕 하여?

(나이가 많은 말이라 해서 콩을 싫다고 하겠느냐?)

나. 큰 쇠 으분 말댕 하느냐?

(큰 소가 먹이를 싫다고 하느냐?)

(5)는 제주 방언 관용구인데 '말다'가 '싫다' 자리에 쓰이고 있어서, 부정 응답(문순덕, 1997)에서 '싫다' 자리에 '말다'가 쓰이는 것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다'는 '싫다'의 뜻으로 쓰였으며, '거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싫다고 하겠느냐?'는 '거부하겠느냐?'라는 뜻과 같다. 실제 발화시에 '말다' 대신에 '싫다'가 쓰이지는 않는다. 제주 방언에서 '말다'는 '싫다'의 영역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에서 '말다'의 기본 의미와 부차 의미 기능을 살펴 보았다. '말다'와 '아니하다'가 구별해서 사용되는 것을 볼 때 '말다'의 의미는 "부정+화자·주어의 의지"라 할 수 있다. 원래 '말다'는 '행위 금지'를 기본 의미로 해서 '긍정, 강조', '단순 부정 아니', '싫다'(거부)의 부차 의미가 있음을 보았다.

2. '말다'의 통사 의미 기능

이 장에서는 '말다'에 본동사의 기능이 있는지 아니면 본래 보조동사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 '못하다', '말다'는 항상 보문소 '-지'와 공기하므로 본동사로 보는 것이 무난하지만, 여러 논자들이¹⁾ 제시한 문법 기능을 보면, '말다'는 본동사 또는 보조동사의 문법적인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6) 가. 그런 말 곤지 {말라, *아니하라, *못하라}

나. 우는 책 하지 {말게, *아니하게, *못하게}

다. 검질 매지 (*말다?, 아니헨다?, 못헨다?)
 라. 책 데끼지 (*말다, 아니헤서, 못헤서)

(6)에서 보면 '말다'는 명령·청유문에서만 쓰이며 선행 요소로는 동작 동사만 취한다. 이것은 명령, 청유가 청자의 행동을 수반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즉 평서·의문문에 쓰이는 '아니하다', '못하다' 대신 명령·청유문에서는 '말다'가 쓰임을 알 수 있다.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 '못하다'와 '말다'는 상보적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아니하다, 못하다'는 동작이나 상태가 없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평서·의문문에서만 쓰이며, '말다'는 대상에 대해 거부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화자(주어)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어서 명령·청유문에 쓰인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중세 국어에서 '말다'의 쓰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 (7) 가. 너희돌히 거술 뿐 양 말라. (--거역할 뜻을 갖지 말라) (석상 21 : 12)
 나. 너희 天人돌히 하 슬허 말라. (-- 슬퍼하지 말라) (석상 23 : 8)
 다. 願하든 어마니미 그러 마르쇼셔. (석상 11 : 20)
 (원하건대 어머님께선 그리워 하지 마십시오)

(7)에서 '하지'의 생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보문소 '-지' 없이 '말다'가 본동사로 쓰였는지가 문제이다. 장형 부정문은 '-지 말다'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하)지 말라'라는 완성된 문장을 연상하게 되지만, 중세 국어에서 이미 '말다'가 보문소 '-지' 없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말다'의 선행 요소가 명사, 동사인대 '-지'가 생략되었다. 표준어인 경우 동사(상태 동사 포함)어간에 '-지'의 통합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중세 국어에서 '말다'는 타동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말다'가 본동사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물론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 '못하다'도 같은 통사 특성을 갖고 있지만 '말다'가 더 자연스럽다. 따라서 장형 부정문의 구조로 본다면 '하지'가 생략되었지만 '말다'에 본동사의 기능이 있

8) 최현배(1955 : 398)은 부정 보조동사로 명명했고, 신창순(1974 : 11-14)는 부정 타동사라 했으며, 전병래(1984 : 36-37)은 명령 부정문의 부정소로 다루었다. 송석중(1967 : 121)은 '말-'은 '아니', '못'과 달리 동사 앞에 오지 못하므로 부정소가 아니라 동사어간 자체라고 해서 동사로 보고 있다. 이상복(1979 : 14)는 부정 조동사로, 한 길(1977 : 64)는 보조 용언으로, 김성화(1989 : 166)도 '말-'이 "본래 주동사였으나 '-(지/다가/고) 말-'에서는 조동사화했다"고 보고 있다.

제주 방언 '말다'의 의미 기능

다고 볼 수 있다.

(7)에서 '양하다, 슬허하다, 그려하다'처럼 '하다' 접미사가 붙는 경우에는 '하지'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말다'의 선행 요소가 '동사'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으므로 파생동사가 와야 하지만 여기에 목적격조사 '-을/를'을 통합하면 다음과 같다.

- (7') 가. 너희들히 거슬 뵈 양을 말라.
나. 너희 저스들히 하 슬허를 말라.
다. 願하든 어마니미 그려를 마르쇼셔.

(7')에서 '말다'는 타동사로 쓰이고 있어서 원래 동사로 쓰였는데 표준어에 오면서 보조동사로 기능하게 되었고, 그 본동사의 흔적이 제주 방언 부정 응답에 남아서 지금까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다'가 보조동사로 쓰이는 경우의 통사 의미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8) 가. 나 마랑 성안티 ㄹ르라. (나 말고 형에게 말하라)
나. 나 걱정 마랑 느나 잘 하라. (나 걱정 말고 너나 잘하라)
다. 집치레 마랑 밧치레 하라. (집 치장 말고 밧 치장 하라)

(8)에서 '마랑'은 '말고'의 뜻이며, '말+양'으로 형태 분석할 수 있다. '-양'은 표준어의 연결어미 '-고(서)'에 해당된다. '마랑'의 선행 동사와 후행절의 동사가 동일한데, 이처럼 선·후행절의 동사가 동일한 경우 '하지'와 더불어 선행절의 동사가 생략된다.

(8가)처럼 인칭 대명사에 결합된 '말다'를 동사에서 전성된 보조사⁹⁾로 보는 학자

9) 김성화(1989:170)에서는 "너말고 네 아범"과 같은 문장에서 '말고'를 동사 '말-'에서 전성된 보조사로(의미는 단절) 보고 있다. 임흥빈(1987:83)에서는 이 '말-'과 부정 서술어 '말-'을 다르게 구분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8나)에서 "나 (걱정하지) 마랑 ..."이 가능하며, 인칭 대명사에 결합된 보조사처럼 보이기에는 하지만 보조동사로 쓰이고 있다. 서정수(1994:866)에서도 보조사로 다루기 보다는 동사 '말다'의 관용적인 용법으로 다루고 있다. 한 길(1977:60)에서는 이 '말다'는 서술어로서의 자립성이 없어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말다' 자체는 '행위 금지'를 의미하며 그 행위에 해당하는 동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가다, 먹다'와 같은 일반 동사에 비해서 불완전하지만 자립성을 띤다. 부정 응답에서 '난 말다'가 성립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도 있으나, 엄격히 따지자면 주어와 '마랑' 사이에는 보조사 '-은/는' 이(문장에 따라 보조사 '-만' 도 결합할 수 있다) 생략되어서 이 때의 '마랑' 은 보조동사이다.

- (8') 가. 나(안티)는 (곤지) 마랑.
- 나. 나 걱정은 (히지) 마랑.
- 다. 집치레는 (히지) 마랑.

(8')에서 선행·후행절의 동사가 동일하니까 선행절의 동사가 생략되면서 보조사도 생략되었다. 따라서 주어에 바로 연결되는 보조사처럼 보일 뿐이다. "그것 말고 이것 주세요."에서 '말다'는 일반 동사로서의 기능이 있다. 따라서 지시 대명사와 쓰인 '말다'가 동사이면 인칭 대명사와 쓰인 '말다'도 동사로 볼 수 있다. "이 물건 말고 다른 것은 없어?"에서 '말고'는 '외에, 제외하고'라는 뜻이며 역시 부정의 의미가 있다. 인칭 대명사에 쓰인 '말다'는 보조동사이며 그 의미는 '제외하다'라 할 수 있고, 일반 동사로서의 '말다'는 '그만두다, 중지하다'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사랑 말고 결혼이 좋다."에서도('사랑(은) 말고'에서 보조사가 생략됨) '말다'는 (8)과 마찬가지로 동사임을 알 수 있다. 인칭 대명사를 제외한 보통 명사와 쓰일 때 그 명사는 '걱정, 사랑'처럼 동작성을 띤 명사이며, 이 때에는 '말다'가 단독으로 서술어의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말다'는 동작 동사와 공기한다는 통사 특성을 만족시키고 있다.

한 길(1977 : 60)에 의하면 (8가)의 '마랑'처럼 동작성이 없는 명사(인칭 대명사)와 같이 쓰이는 경우 "문맥 안에서 쓰여 전체문의 용언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고 있으며, 이 때의 '말다'는 "서술어로서의 자립성이 없어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은 복문인 경우 '말고'가 선행절에 쓰일 때 명사는 자립성이 있어서 '명사 어간' 자체로도 문장 성분이 되므로 '하지'가 생략되지만 동사는 자립성이 없어서 어근 자체만으로는 문장 성분이 될 수 없으므로 보문소 '-지'가 생략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말다'가 본동사로 기능함을 보고자 한다.

- (9) 가. 일히지 실프민 말라.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 나. 일천석을 주노랭 말라. (일천석을 준다고 하지 말라)
- 다. 쟁피행 마랑 잘 히라. (창피하다고 하지 말고 잘하라)

제주 방언 '말다'의 의미 기능

(9나)에서 “*일천석을 준다고 말라”는 표준어이며, 비문인 것으로 봐서 제주 방언에서 ‘말다’에는 본동사의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9다) 역시 표준어인 경우 “*창피하다고 말고”는 비문이 된다. 따라서 (9나, 다)처럼 인용문에서 ‘말다’는 표준어보다 자립성이 강함을 알 수 있다.

(9가)에서도 ‘말라’는 본동사로 쓰이고 있는데 좀더 살펴보고자 한다.

- (9가') ㄱ. 일하지 싫포민 말라.
나.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마.
다. *일하기 싫으면 마

(9가', ㄱ)에서 ‘말다’는 본동사임을 알 수 있다. (9가', 나)은 표준어이며, (9가', 다)이 비문인 것은 ‘말다’가 제주 방언에 비해서 표준어에서 자립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다’가 표준어에서는 보조동사로 문법화되었는데 제주 방언에서는 본동사의 기능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 (10) 가. ㄹ장 솔지니란 말고 (노연: 19)
나. 내 '내엿 천랑'이란 말오, 그 외 옛너나민 것과 (석상 21: 47)
(내 창고에 있는 재물은 말고 그밖의 다른 것과)

(10)은 중세 국어인데 제주 방언과 같은 본동사의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살진이는 말고’, ‘재물은 말고’에서 ‘말다’는 불완전하지만 타동사의 기능이 있다. (10가)는 어떤 금지의 대상(동사)이 생략되었지만 ‘-는’과 통합된 어휘를 제외하고 후행절을 긍정하게 된다.

(10나)는 ‘내 창고에 있는 재물’은 안된다는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물론 문장 내용으로 봐서 그외 다른 곳에 있는 재물은 가져가도(사용해도) 좋다는 해석을 가정할 수 있다.

- (11) 가. 가이 공부홈이랑마랑 잠저.
(그 아이는 공부하기는커녕 자고 있다.)
나. 가이 일홈이랑마랑 놀암저.
(그 아이는 일하기는커녕 놀고 있다.)
다. 어멍 살 읍디갠 홈이랑마랑 보래지도 아너라.

(어머니 잘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기는커녕 쳐다보지도 아니했다.)

(11가)에서 '그 아이가 공부하고 있을 것이란 믿음'을 깨뜨리고 있다. 따라서 선행절의 '공부한다'를 부정, 강조하면서 '자는 행동'을 비난하고 있다. (11나)에서 '그 아이가 일하고 있을 것이란 믿음'을 부정하는 발화이며, '일한다'를 부정, 강조하고 있으며, '노는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11다) 역시 인사성이 없음을 꾸짖고 있다.

(11)에서 '마랑'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마랑'은 부정어 '아니다'처럼 쓰이고 있으며, 선행절을 부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랑마랑'은 선행절의 기대를 무시하고 체념할 때 쓰이며 선행절을 부정하고 있다. 즉 선행절은 물론 후행절의 내용을 부정적으로 표현한다고(못마땅하게 여기는 정도) 볼 수 있다. '마랑'에는 '말다'의 기본 의미인 '행위 금지'의 뜻이 내포되어 있으며, 선행 동사를 부정하는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강정희(1992 : 715)에서는 '마랑'을 '~는커녕'으로 해석해서 보조사로 다루고 있다. '~이랑'은 표준어 '~은/는'에 해당하는 보조사이며, '마랑'은 '말다'에서 문법화된 보조사이다. 따라서 '이랑마랑'은 보조사로서 그 뜻은 '~는커녕', '~는고사하고' 등이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것은 '말다'가 부정 어휘이기 때문이다.

다음 보기를 통해서 통사 기능을 좀더 살펴보고자 한다.

(12) 가. 님신디 곧지 말게. (남에게 말하지 말자.)

나. 우리 일 하지 말게.

다. 가이 걱정 하지 말게.

(12') 가. * 님신디 곧 말게.

나. ?우리 일 말게.

다. 가이 걱정 말게.

(12' 나, 다)에서 '하지'를 생략해 보았다. 파생동사에서는 '하지'의 생략이 자연스러우나, (12' 가)와 같이 '동사 어근+지'인 경우는 생략이 안된다. 그래서 명령문과 청유문에서 '하다' 동사인 경우 '하지' 생략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파생동사인 경우에는 본동사로 보고, 후행하는 '말다'는 보조동사로 보는 경향이 허다하다. 하지만 이 때의 '말다'를 본동사로 다루려고 한다. 왜냐하면 (12')에서 보듯이 '말다'는 타

제주 방언 '말다'의 의미 기능

동사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 (13) 가. 이 방에 들게 말라/말게.
나. 가이 올게 말라/말게.

- (14) 가. 다른 사람 가져 가게 말라. (노언卜 32)
나. 놀흐란 너무 돌겁게 말라. (변박卜 16:1)
다. 太?는 거죽말 몰흐시는 거시니 뉘으쳐 마르소서. (석상 6:49)
라. 슬위로 히여 더되에 흐하 늘근 넷 버디 슬케 흐디 말라. (두초 8:21)

(13)에서 보듯이 제주 방언에 남아 있는 형태로는 보문소 '-지'와 '-게'이며, '-아/어'에 후행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고, (14)에서 보듯이 중세 국어에는 '말다'가 보문소 '-지' 외에 '-아/어, -게'에 후행함을 알 수 있다.

(13)에서 '-게 말다' 문형이 명령·청유문에서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보문소 '-게'와 '말다' 사이에 '하지'가 있어야만 문장이 성립하는 것은 표준어이고, 제주 방언과 중세 국어에는 '하지'가 없어도 문장이 성립하는 공통점이 있다. (13)은 지금도 제주 방언 언중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문장이다. (표준어인 경우에도 사적인 대화시에는 가능하다.)

(14가, 나)는 중세 국어에서도 '-게 말다' 문장이 쓰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이다. 보문소 '-게'의 선행 요소는 동작 동사이다. 이것은 제주 방언에 중세 국어의 통사적인 흔적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14다)에서 보문소 '-아/어'와 '말다'의 共起 관계가 중세 국어에만 있는 통사 특성이다. (14라)는 '흐디'의 생략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라기보다는 '-게 흐다' 사동문에 대한 부정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런데 (13)에서 '-게'와 '말다' 사이에 '하지'가 생략되었다고 보는 쪽(박영준 1994:223)도 있지만, '부정: 긍정'의 관계로 본다면 '하지' 생략설은 배제되어야 한다. 반면에 고영근(1987), 허 웅(1975), 홍종선(1986)은 '하지' 생략설을 부인하고 있다. 필자도 원래 '-게 말다' 형이 존재했다는 견해에 동의하며, 아울러 '말다'는 동사임을 알 수 있다.

- (15) 가. 경 마랑 오늘 바치주.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바치자.)
나. 말다.

(15가)에서 화자는 긍정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며 청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15나)처럼 부정 응답인 경우에는 주어의 강한 거부 의사가 담겨 있다. (15가)의 긍정 대답은 '경호주'가 된다. '그렇게 하다'라는 뜻이다. 여기서 '말다'의 긍정이 '하다'가 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표준어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가 되는데, 이 때는 '하지'의 생략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제주 방언인 경우에는 보기에서 보듯이 오히려 '하지'의 생략이 보편적이다. 즉 부사어인 '경'이 서술어인 '말다'를 한정하고 있어서, 이 때의 '말다'에 본동사의 기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말다'는 명제에 대한 거부 의사가 내포되어 있으며 본동사로 쓰임을 알 수 있다.

- (16) 가. 영희야 청소 말아라.
나. 학생들 줄지 말아라

(16)은 표준어인데 제주 방언과 대동소이하다. (16가)에서 파생동사 '청소하다'에서 '하지'의 생략이 가능하며, (16나)에서 '줄다'는 단일어여서 '-지'의 생략이 불가능하다.

명령·청유문은 모두 청자의 행동과 관계가 있어서 '말다'에 선행하는 동사는 [+동작]의 의미 자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 '못하다', '말다'에 통사 제약이 있는 것이다.

부정 어휘 '말다'는 일반 동사이며 단일어이고, 선행 요소로 동작 동사가 선택되며, 장형 부정문만이 성립한다. 즉 부정소 '아니'와 '못'은 '하다'와 분리할 수 있고 동사 앞·뒤에 올 수 있으나, '말다'는 '말+하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어휘 자체가 부정을 의미하며, '말-'의 위치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형 부정문은 있을 수 없다. '말다'가 부정 서술어로 기능할 때 '-지'와 결합한 선행 동사의 행위(동작) 발생을 그만두게 하는 금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청자의 '행위 금지'를 요구하거나 부탁해야 하므로 선행 요소에 동작 동사가 필요한 것이다. '말다'는 본래 어휘적 표현의 본동사였으나 문법적 구성을 나타내는 보조동사의 기능과 보조사의 기능이 있음을 보았다.

통시적으로 볼 때 변화 과정이 오래수록 그 흔적은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각 지역 방언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유성을 상실하며 표준어의 틀에 동화되었는데, 제주 방언에 중세 국어의 잔영이 있음을 보았다.

제주 방언 '말다'의 의미 기능

3. '말다'의 화용 의미 기능

화용(담화)이란 발화된 문장과 그 배경이 되는 전제 등을 고려하며 문맥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유문과 명령문에서 '말다'의 의미와 선행 요소에 미치는 부정 영향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물론 초점 위치에 따라 부정 대상이 달라지는 것은 부정 서술어 '말다'와 호응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했던 (12)의 화용 의미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7=12) 가. 뉘신디 굳지 말게.
- 나. 우리 일하지 말게.
- 다. 가이 걱정하지 말게.

부정문은 초점 대상에 따라 부정 범위가 달라지는데 초점이 중립일 때에는 선행 동사가 부정된다.

(17)은 부정 청유문의 보기이다. 청유문의 화용 의미 기능을 살펴보면, (17가)는 '남에게 말하는' 행위가 있거나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쓰인다. 먼저 '뉘신디'에 초점이 놓이면 '다른 사람에게에는 말하지 말고 담화 공간에 있는 우리끼리만 말하자'로 해석이 된다. '굳다'에 초점이 놓이면 '말하는 행위'만 부정된다. 즉 '남에게 말하는 행위' 외에 다른 행동은 해도 좋다는 뜻이다.

(17나)에서 '말게'는 선행 동사인 '일하다'를 부정하며 일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즉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지 말자'는 뜻으로 거절의 의미가 들어 있다. (17다)에서 화자의 의도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아이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는 청자의 '행위 금지'를 요청하고 있다. 즉 '우리가 그 아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과, '우리들의 염려가 무의미하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한길(1977 : 67)에서는 부정 어휘 '말다'의 "주어가 [+유생적]이어야 하며, 주어가 1·2인칭일 때는 '아니하+말하는 이의 의지'로 분석이 되고, 3인칭일 때는 '아니하+주어의 의지'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명령·청유문은 통사 특성상 당연히 주어가 [+유정]이어야 하며, 동작 동사가 와야 하므로 주어가 움직일 수는 동작성이 있어야 한다. '말하는 이의 의지', '주어의 의지'는 주어의 인칭과 관계가 있으며, '말다'는 명제를 부정하는 부정 어휘임을 알 수 있다. '말다'는 명령이나 요청에 대

한 거절의 뜻으로 사용되므로 당연히 '화자의 의지'가 포함된다. 따라서 단순 부정을 의미하는 부정소 '아니'에 '화자의 의지'가 더해져서 '행위 금지'를 부각시켜 준다. 그런데 주어가 3인칭일 때에는 '화자의 의지'가 반영될 수도 있다.

- (18) 가. 불레낭 거끄당 손 다친다. 말라.
 (보리수 나무 꺾다가 손을 다친다. 꺾지 말라)
 나. (그 뱀부테 舍利弗드려 니르샤디)
 말라 말라 다시 니르디 마라사 흐리니 (석상 13 : 44)

(18가)는 제주 방언이고 (18나)는 중세 국어이다. (18가)에서 '말라'는 '하지 마'의 뜻으로 쓰였다. 담화가 생략되고 '말라'가 단독으로 발화될 때는 '행위 금지'를 단정하고 있다. 이런 담화 생략은 보편적이다. 표준어는 "하지 마"로 실현되지만, '말다'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물론 화자와 청자는 '거끄지 말라'라는 의미로 파악하고 있으며, 화자의 요구를 청자가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아이들이 떠들고 있을 때도 어른이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말라(이)"라고 말한다. 즉 떠들지 말라는 뜻이다. 표준어인 경우 어머니가 어린 아이에게 간단한 명령이나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되기도 한다(하지 마! 안돼—이 경우에는 강한 부정, 거부, 단정의 표시일 수 있다). 화자는 '나무를 꺾다가 손을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청자는 모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자가 나무 꺾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8나)는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로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 물론 후행절의 내용을 보면 금지의 의미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제주 방언처럼 '말라' 단독으로 문장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말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된 내용일 수도 있다. 따라서 청자가 말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8)에서 보듯이 '말라'가 단독으로 서술어로 쓰이고 있으며 본동사임을 알 수 있다. 표준어인 경우에는 이처럼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하지 마"로 쓰인다. 따라서 '말다'의 자립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제주 방언에 중세 국어의 자취가 남아 있음도 알 수 있다.

'말다'는 명령문과 청유문에서 그 행위를 부정하며 '그만두다, 중지하다, 금하다' 등의 뜻을 가진 어휘로 알려졌다. '말다'는 의미 자체가 화자나 청자의 의도, 요구에 따라 '행위의 금지'가 가능하다. 명령·청유문의 통사 특성상 동작 동사가 선택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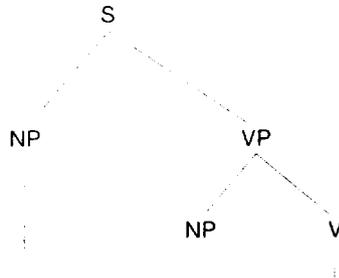
제주 방언 '말다'의 의미 기능

주어의 어떤 동작을 요구하는 문장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지 말다'가 쓰이는 것은 '말다'가 긍정문에서 보여 주었던 주어의 동작성을 중단하거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재의 행위든, 미래의 행위든 현재 발화 시점에서 멈추기를 명령, 부탁하게 된다. 따라서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 못하다'는 이 두 문형에 쓸 수가 없고 대신 '행위의 금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다'와는 상보적 분포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말다 - 하다'의 대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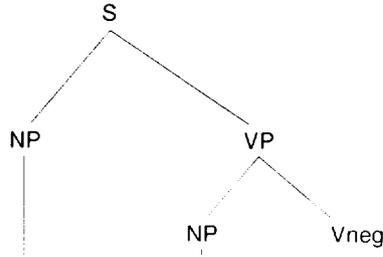
부정문과 긍정문에서 서로 대립하는 어휘를 보면 "말다 - 오", "엇다 - 잇다", "아니다 - 이다", "모르다 - 알다" 등이 있으며, 서로 대립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 "오"에 "하다"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정의 '말다'와 긍정의 '하다'는 서로 대립적이 될 수 있는지 가정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19) 통사 구조
가. 긍정문



- 10) 제주 방언에는 중세 국어인 '잇다, 이시다, 시다(식다)' 등의 형태가 있으며, 이들의 실행은 음운 조건에 의한다. 이는 표준어 '있다'에 해당하며 '이시다'와 '시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잇다'와 '식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실현된다. 그러나 실행 환경이 규칙적이지는 않다.
- 11) 여찬영(1975 : 174)에서는 중세 국어에서 평서문, 의문문에서는 '아니하다', '못하다'가 나타나고, 통사론적 제약에 의해 청유문·명령문에는 '말다'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말-' 동사는 긍정 명령문에 나타나는 「하-」 동사에 대립되는 것으로", 긍정의 「하-」 동사와 부정의 「말-」 동사는 서로 대립된다고 보고 있다.

나. 부정문



(19)에서 보듯이 통사 구조상 '하다'와 '말다'는 동사로서 대립됨을 보고자 한다.

(20=13) 가. 이 방에 들게 말라.

나. 가이 올게 말라.

(21) 가. 이 방에 들게 하라.

나. 가이 올게 하라.

(20)과 (21)을 비교해 보면 '말라'와 '하라'의 선행 조건은 '동사+게'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하다'의 부정은 '아니/못하다'인데 이 부정 서술어를 명령·청유분에는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부정 어휘인 '말다'와 교체될 수 있다고 보며, 이렇게 교체가 가능하다면 '하다'의 대립쌍은 '말다'임을 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긍정의 '하다'에 대한 부정은 세 개의 부정 서술어가 다 대응되는데, '아니하다', '못하다'는 '부정소+하다'의 통사적인 복합 구성이어서 부정소를 분리할 수 있으며 부정 어휘로는 '말다'만 남는다. 따라서 동사 '하다'에 대립하는 부정 어휘로는 '말다'가 될 수 있다.

(22=14) 가. 다른 사람 가져 가게 말라. (노언 卜 32)

나. 놀호란 너무 돌겁게 말라. (변박 卜 16:1)

(23) 조차 가게 하라. (석상 6:9)

제주 방언 '말다'의 의미 기능

(22)에는 서술어로 '말다'가 썼었고, (23)에는 서술어 '하다'가 쓰였다. 그래서 '말다-하다'의 대립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긍정의 '하다' 동사에 대한 부정어로는 '말다'가 됨을 알 수 있다. '하다' 외에 일반 동사는 그 동사 자체가 부정된다. 따라서 '하다'의 부정이 '말다'는 되지만 '말다'의 긍정이 항상 '하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하다' 동사 외에 다른 동사도 있다. 따라서 '하다' 동사에 한해서만 '말다'와 대립된다고 할 수 있다.

동사 '하다'와 '말다'는 서로 대립쌍이 되지만 '하다' 동사를 제외한 다른 동사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말다'의 대립쌍이 항상 '하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긍정의 '하다'에 대립되는 것이 '말다'라 할 수 있다.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 '못하다'는 '부정소+하다'로 분리가 가능하므로 '하다'를 쉽게 추출할 수 있으나, '말다'는 부정 어휘이기 때문에 쉽게 형태 분석이 안된다. 그래서 긍정의 '하다'에 대한 부정 어휘는 '말다'라 할 수 있다. '하다'의 선행 요소는 자립성을 띤 명사이며, '말다'의 선행 요소는 동작성을 띤 동사로서 서술어의 기능을 지닌다. '하다'와 '말다'도 본동사로서 동사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선행 요소 자체에도 동작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이상에서 논의한 부정 어휘 '말다'의 의미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 말다 ① 기본 의미 : 행위 금지
- ② 부차 의미 : 강조, 확인 / 단순 부정 '아니' / '싫다'
- ③ 부정 응답 : 행위 거부
- ④ 보조사 : -는커녕, -는고사하고
- ⑤ 보조동사 : 제외하다

부정 어휘 '말다'의 기본 의미는 '행위 금지'인데 '강조, 확인', '단순 부정 아니', '싫다'의 의미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다'의 통사 기능상 선행 요소로는 [+동작]의 의미 자질을 갖는 동사가 와야 하므로 명령·청유문에 쓰이며 문맥 의미도 다양함을 보였다. 제주 방언에서는 아직까지 본동사로 기능하고 있음도 엿볼 수 있다. 표

준어와 마찬가지로 주어의 희망이나 소망을 나타낼 때는 '말다'가 쓰이지만 '아니하다'로 대체된다. '말다'는 명령·칭유문의 통사 기능 때문에 다른 문형에서는 쓰이지 못하며 '아니하다', '못하다'와 상보적 관계에 놓여 있다.

제주 방언과 표준어의 차이점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보기 (2, 9)처럼 본동사의 기능이 있는 것과, 보기 (5)처럼 '싫다' 자리에 쓰이는 것과, 보기 (8)처럼 보조동사의 기능이 있는 것과, 보기 (11)처럼 '말다'가 보조사로 기능하는 것과, 보기 (13)처럼 보문소 '-계'와 쓰이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말다'는 '없다'나 '모르다'처럼 '부정소+긍정 어휘'로 해체 분석할 수는 없지만 동사의 흔적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다'를 긍정의 대립적으로 설정하면 '하다'의 통사상의 부정은 '아니 하다', '하지 아니하다'가 되며 어휘의 부정은 '말다'가 됨을 살펴보았다.

참고 문헌

- 강정희(1992), "제주방언 물음-응답 부정표현 체계에 대하여", 국어학 연구 백년사, 일조각.
- 고영근(1987), 표준 중세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 김동식(1990), "부정법",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김성화(1989), "「-지/다가/고」말-'의 의미기능", 국어국문학 102, 국어국문학회.
- 김영희(1984), "하다: 그 대동사설의 허실", 배달말 9, 배달말학회.
- 남풍현(1976), "국어 부정법의 발달", 문법연구 1, 문법연구회.
- 문순덕(1997), "제주 방언의 부정 응답 구문", 탐라문화 1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박순함(1967), A Transformational Analysis of Negation in Korean, Ph. D. Diss. (The University of Michigan)
- 박영준(1991), 국어 명령문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서정수(1975), 동사 '하'의 문법, 형설출판사.
- (1994),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 송석중(1967), Some Transformational Rules in Korean, ph. D. Diss. (The University of Indiana)
- (1993), 한국어 문법의 새 조명: 통사 구조와 의미 해석, 지식산업사.
- 신원재(1987), 현대국어 부정 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찬영(1975), "중세어 부정법 소고", 연세어문학 6,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제주 방언 '말다'의 의미 기능

- 이상복(1979), "동사 '말다'에 대하여", 연세어문학 12,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 이정민(1977), "부정 명령의 분석", 어학연구 13-2, 서울대 어학연구소.
- 이태영(1988), 국어 동사의 문법화 연구, 한신문화사.
- 이효상(1993), "담화·화용론적 언어 분석과 국어 연구의 새 방향", 주시경 학보 11, 주시경학회.
- 임홍빈(1987), "국어 부정문의 통사와 의미", 국어생활 10, 국어연구소.
- 장석진(1985), 화용론 연구, 탑출판사.
- 전병래(1984), 한국어 부정구조의 분석: 변형·생성문법적 고찰, 한신문화사.
- 최현배(1955), 우리말본, (수정판) 정음사.
- 한 길(1977), 한국어 부정어에 대한 연구: '아니다, 없다, 말다'의 해체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허 웅(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홍종선(1986), 국어 체언화 구분의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홍종립(1993), 제주방언의 양태와 상, 한신문화사.
- 황병순(1980), "국어 부정법의 통시적 고찰", 어문학 40, 한국어문화회.
- 현평효(1985), 제주 방언 연구, 이우출판사.
- Stephen C. Levinson(1983),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이익환·권경원 역(1992), 『화용론』, 한신문화사.)